



이종인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사업장 안전점검을 하다보면 사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흔히 듣게 된다.

“소방서에서 나오면 이리하라하고, 가스공사는 저리, 구청은 또 이렇게 하라는 등 각 관공서마다 요구조건이 다르니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 모르겠다.” 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안전 관리자는 노동부 점검 뿐 아니라 관공서 점검이 거의 매일 이어져 개선을 하기보다 점검에 따른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봉합하기 바빠 체계적인 안전을 하기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과연 우리 사업장에 안전의 틀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점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업장에서 지적을 적게 당하고 문책

을 안당하려면 그때그때의 미봉책으로 보이는 안전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그때뿐인 안전에 그치고 마는 실정이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다. 누구를 위해 안전을 해야 하는데, 주인공은 주구인데, 주인공이 철저히 배제당하고 외면당하는 현실을 한번쯤 돌아보면서 안전의 틀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안전의 주인공은 근로자다. 그리고 그 근로자가 일을 잘하도록 정말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안전이다. 안전은 여기에서 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어떤 책을 읽고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 옮겨 본다. ‘항아리에 주먹만 한 돌을 가득 담고, 다시 모래를 항아리 부피만큼 가져다 쏟아 붓고, 거기에 물을 부면 어찌될까? 라는 문제가 나온다. 답은 ‘다 들어갑니다.’이다. 그러면 거꾸로 모래를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주먹만 한 돌을 집어넣으면 어찌될 것인가? 물론 안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항아리에 담은 주먹만 한 돌이 만들어 놓은 틀이 없어서이다.

우리 사업장들의 안전 팀이 안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려 한다. 내가 다녀본 안전 팀들을 살펴보면, 한 예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시방서를 같이 맞춰보고 고민한 흔적을 한번도 본 기억이 없었다. 불행한 일이다. 그



삼화_김동희

리고 현장의 전체적인 안전규칙(예를 들면 중량물 취급 계획, 안전작업발판 설치계획 등)조차도 찾을 수가 없다. 좋다는 제도는 다 가져다가 반영 한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그 누구도 틀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 그저 점검이나 보고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업장들이 수많은 제도를 가져다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틀 없이 적용하다보니 사업장은 사업장 나름대로 지치고 하는 사람도 지쳐 목적 없이 떠도는 배처럼 안전의 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다. 감독관이 점검을 나가서 안전에 대한 뜻을 전달하면 “이젠 지쳐서...”라고 말한다. 그때 나는 그런 경우 이런 말을 한다. “그 어떤 근로자도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안전의 틀을 말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작은 예를 들어 안전의 틀 만드는 법을 제시하려 한다.

건설현장을 예로 들겠다. 높이 약 20미터 H빔에서 볼트 연결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한다면 1차 안전이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걸이시설을 하여 주었는데 안전대걸이 줄

이 절단 되면서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다면 2차 안전이라 하고, 마침 그 밑에 안전망이 있어 근로자를 잡아준다면 3차안전이 된다.

이런 경우 현장 전체를 펼쳐놓고 구역을 정해 근로자가 많이 작업하는 곳, 위험한 곳, 장비가 많은 곳, 협력업체가 섞여서 작업하는 곳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구역을 정하고 어느 곳은 위험 3차 지역, 어느 곳은 2차 지역, 어느 곳은 안전지대이니 1차 지역으로 표시하고 다시 3차 지역 7곳, 2차 지역 2곳, 1차 지역 5곳 등을 전체현장에 표시되면 $3 \times 7 + 2 \times 2 + 1 \times 5 = 30$ 이라는 수치를 얻게 된다. 이 수치로 현장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수준을 정한다. 예를 들어 10점은 안전, 20점은 보통, 30점은 위험으로 분류해 그 위험수준에 적합한 좋은 제도를 도입·관리한다면 사업장의 위험도는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관리한다면 사업장의 안전은 한눈에 보일뿐 아니라 안전 관리자가 현장순찰시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며, 특히 우리현장의 실태인 정말 위험한 곳에서 안전시설 없이 작업하는 그러한 문제는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